

금호타이어 이전 후보지, 빛그린 산단 급부상

2019년 이전 협약후 2년째 제자리
글로벌모터스 공장과 집적효과 기대
광주시·함평군 경계 문제 걸림돌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이전 후보지로 광주 미래자동차 생산 거점인 빛그린 국가산업단지가 거론되고 있다.

빛그린 국가산단에는 전국 최초 지역 상생 일자리인 광주 글로벌모터스(GGM) 공장과 친환경자동차 부품 클러스터, 친환경부품인증센터 등 자동차산업 관련 시스템이 구축중인 곳이다. 따라서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이 이 곳 산단으로 이전할 경우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하지만, 광주와 전남 함평에 걸쳐있는 빛그린 산단의 지리적 특성상 금호타이어 이전 부지가 광주 소재일지, 함평 소재인지에 따라 논의의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현재 산단 내의 광주지역 산업용지는 빈방이 충분하지 않아 사실상 이전은 어려운 상황이고, 이전이 가능한 함평지역 산업용지는 전남지역이라는 점 때문이다. 현재 소촌동의 금호타이어 공장의 도시계획 변경 등을 위해서는 광주 역내로 이전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있어 향후 광주시와 금호타이어 간 논의가 주목된다.

23일 광주시에 따르면 금호타이어 공장 이전은 지난 2019년 1월 광주시와 금호타이어 사측 간 '광주공장 부지 도시계획 변경 및 공장 이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하면서 수면 위로 떠오른 뒤 아직 답보 상태다.

금호타이어는 같은 해 8월 부지 개발 계획안을 제출했지만, 광주시는 "이전 대상 부지와 이전 계획이 제대로 담기지 않았다"면서 "이전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반영하라"고 반려했다. 이는 금호타이어 측이 공장부지 용도변경과 개발을 통해 수천억원에 이르는 개발이익을 거두게 된다는 점에서 공장의

광주 역내 이전과 고용유지 등 구체적 이전 계획 담보 없이는 개발에 필요한 행정조치가 불가능하다는 광주시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양측 협의의 중심과 최대 관건은 이전 부지를 찾는 것이다. '관내 이전'을 원칙으로 광주의 기존 산단 조성지, 개별 입지 등을 모색했으나 면적, 착공 시기, 땅값 등 요건을 충족할 대상지는 나오지 않았다. 금호타이어는 공장 노후화를 고려해 이른 시점 신규 투자를 바라지만 새로운 산단을 개발하려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절차에만 몇 년을 보내야 한다. 기반이 조성돼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곳은 땅값이 비싸고, 면적을 갖춘 개별 입지는 토지 보상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도 있었다.

빛그린 산단도 이전 논의 초기부터 후보지로 거론됐지만, 문제는 산단 내에서도 광주 광산구에 속한 산업시설 용지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었다. 빛

그린 산단 내 산업부지 시설용지 119만㎡ 중 GGM 공장 부지가 59만㎡이고, 친환경차 부품클러스터 용지와 친환경 자동차 부품인증센터 등 제반시설 예정부지 39만㎡를 제외하면 미분양 산업용지는 16만㎡에 불과하다.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부지가 42만㎡임을 고려하면 이전 부지 공급은 산단 내 광산구에 속한 부지 이전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광주시와 업계 안팎에서는 광산구와 맞닿아있는 전남 함평 경계 내 산단 부지에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곳은 50만㎡가량 공장을 수용할 수 있는 데다가 땅값, 착공까지 절차 등 조건도 비교적 양호하다는 점이 장점이다. 다만, 동일한 생활권이라든 행정구역상 광주 밖으로 이전하는 것이어서 광주시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기존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부지의 개발을 위해서는 용도변경을 포함한 지구단위 수립 절차 등 행정절차를 거쳐 회사 측에

수천억원의 개발 이익을 안긴다는 점에서 광주시가 일종의 '특혜'만 사측에 주고, 공장은 전남으로 보내는 격이 되기 때문이다.

광주시는 이 때문에 광주 남구 대촌동 에너지밸리 부지를 단계적으로 추가 확보해 공장을 이전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전을 조속히 확정한다면 도심 외곽이었던 설립 당시와 달리 급세라기만한 된 현 공장 부지를 송정역 KTX 지역 경제 거점형 투자 선도지구 등과 연계해 곧바로 개발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광산구와 함평에 걸친 광주 글로벌모터스 공장의 경계를 조정해 함평 부분을 광주로 편입시키고, 함평에는 금호타이어 공장을 이전시키는 절충안도 일각에서는 나오고 있다. 빛그린 산단 광주 권역에는 자동차 공장이, 함평 권역에는 타이어 공장이 들어서도록 하는 셈이다. 다만, 이해 당사자들간 폭넓은 논의가 선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여권 단일후보로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야권 단일 후보로 국민의힘 오세훈 전 서울시장에 맞붙게 됐다. 박 후보가 23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PD연합회 주최 서울시장 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왼쪽>. 오 후보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야권 단일화 경선 승리 소감을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 “까다로운 상대”…오세훈 단일후보 확정 “혈전 시작”

‘거짓말’ 프레임으로 총공세
“인물론으로 하면 해볼만하다”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야권 단일후보로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선출되자 총공세에 돌입했다. 대결 구도가 확정된 만큼 오 후보의 내국동 땅 의혹, 시장직 사퇴 전력을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박영선 후보의 정책 비전과 강점을 부각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표면적으로는 오 후보를 두고 “충분히 이길 수 있는 후보”라며 기선 제압에 나섰지만, 내부적으로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보다 까다로운 상대를 만났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오 후보는 제1야당의 조직력이 뒷받침해주는 데다 최근 상승세

를 타고 있고 서울시장 경험이 있다는 점에서 만만치 않은 선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로 민심이 동요하며 가뜰이나 선거 지형이 여권에 불리해진 상황에서 풀어야 할 매듭이 늘어난 셈이다.

당 고위 관계자는 23일 통화에서 “오 후보와의 혈전이 예상된다”며 “우리 스스로의 혁신 노력과 함께 오 후보와 국민의힘이 서울시정을 다시 맡을 자격이 있는지를 국민들께 다시 한번 호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당장 오 후보를 “MB(이명박) 아바타”, “거짓말쟁이”, “실패한 시장”으로 규정하며 전면전에 나섰다.

이날 오전 오 후보가 단일후보로 확정된 직후 당 선대위와 후보 캠프가 오 후보 관련 논평을 쏟아내며 화력을 집중했다.

민주당은 오 후보의 서울시장 재임 시절 처가의 내국동 땅 ‘셀프보상’ 의혹을 제기하며 오 후보의 해명이 모두 거짓말임을 입증하겠다고 버리고 있다.

서울의 한 재선 의원은 “큰 담론보다 인물론에 초점이 맞춰지면 해볼 만한 선거”라며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각오를 다졌다.

민주당은 일반적으로 재보선 투표율이 낮은 만큼 지지층을 결집해 투표장으로 이끄는 것이 중요한 선거 전략이라고 보고 있다. LH 사태로 정권 경제론이 정권 안정론보다 탄력을 받는 가운데 국민의힘 조직까지 결집한다면 민주당엔 적지 않은 위협 요소가 될 수 있다.

최근 며칠간 민주당의 공세가 안 후보가 아닌 오 후보에게 집중됐던 것도 견제 심리가 더 많이 발동됐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연합뉴스

김종인, 서울시장 후보 확정 되자 호남행

지난해 무릎 꿇고 사과했던 5·18묘지 참배

호남 민심 구애 행보

“내가 할 수있는 기여 90% 다해”

취임 후 적극적으로 호남을 공략하고 있는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야권의 서울시장 보궐선거 단일후보 선출 직후 곧바로 광주를 찾는다.

23일 국민의힘 광주시당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24일 오전 광주 국립 5·18민주묘지를 참배한다. 이어 5·18 관련 단체와 간담회를 하고 광주시당을 찾는다.

이번 방문에는 국민통합위원장이던 정운천 의원을 비롯해 호남을 ‘제2의 지역구’로 삼은 ‘호남동행’ 의원들이 함께한다.

김 위원장의 광주 방문은 지난해 11월 이후 5개월 만이다. 김 위원장은 취임 이후 불모지인 호남 민심 잡기에 공을 들여왔다. 그는 지난해 8월 5·18묘지를 참배(사진)하고 보수 계열 정당 대표로는 처음으로 무릎을 꿇고 ‘5·18 홀대’를 사과했다. 이어 11월 광주에서 정책협의회를 열고 지역 현안을 쟁했다. 그의 이 같은 행보는 수도권에 막강한 영향력이 있는 호남 민심을 잡고 당의 외연을 넓히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시장 후보 선출 직후 호남을 찾은 것도 서울의 호남 민심을 잡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다. 김 위원장은 서울에 호남 출신이 많으며 수도권에서 호남 민심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그는 사무총장에 전남 보성 출신의 정영아 전 의원을 임명하고 비례대표 국회의원 당선 유력권인 20위 이내에서 4분의 1을 호남 출신 인사로 추천하는 방안을 의결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평소 호남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김 위원장이 서울시장 선거에서 호남의



지지를 끌어내기 위해 방문 일정을 잡은 것으로 안다”며 “다시 찾은 5·18묘지에서 5·18 관련 메시지를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이날 오세훈 후보의 단일화 경선 승리 소식에 “내가 국민의힘에서 할 수 있는 기여의 90%는 다 했다”고 밝혔다. 그는 재보선 후 다시 역할을 맡을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말하면서 “나머지 10%를 더 해서 오세훈 시장을 당선시키면, 그것으로써 내가 국민의힘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다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만나볼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전혀 그럴 계획이 없다”며 윤 전 총장의 재보선 역할론에도 “내가 (뭐라고) 할 사항이 아니다”고 답했다. /최권일 기자 cki@·연합뉴스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201210-중-116878호 단, 환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바른자세, 꾸준한 운동, 세심한 관리로
튼튼한 ‘인생’ 튼튼하게 ‘즐기세요’

척추 무릎 어깨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대표전화 | 062) 970-6000
전화로 MRI를 미리 예약을 하시면 1~2시간 이내에 진단 및 치료가능!

모던 슬라브목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아파트, 빌라, 원룸, 주택, 상가건물, 대형빌딩 등(슬라브 목상) 시공

옥상지붕공사
슬라브 주택, 데스리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옥상 스틸방수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스틸방수시공모습

철재시공모습

옥상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무료견적 디자인 등록 제30-0934833호 제30-0949873호 특허청

광주·전남 같이 하실 분 모집합니다.
모던건설 (트윈스틸) 시공 문의 062)531-3530, H .010-9229-3530